

甲午本 『東醫壽世保元』의 체계에 대한 고찰

이경성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사상의학교실

Abstract

The Structural Study on the Kabo-Bon 『Dongyi Soose Bowon』 System

Lee Kyungsung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1. Purpose:

This study was intended to consider through a bibliographical comparison between the system of Kabo-Bon 『Dongyi Soose Bowon』 and that of Shinchook-Pan 『Dongyi Soose Bowon』.

2. Method:

This study was based on the 『Hamsansachon Dongyi Soose Bowon old Kabo-Bon』, which was compared with a bibliographical data from Shinchook-Pan 『Dongyi Soose Bowon』 and the collection of manuscripts left unpublished in Lee Je-ma's lifetime.

3. Result & Conclusion:

Exterior-Interior Pathological system was found in the system of Kabo-Bon 『Dongyi Soose Bowon』, and it might be referred to that of Jang Joong-kyung's 『Shanghan Ron』. There were no 'the Discourse on the Origin of oriental Medicine' and 'the Discourse on the General Health Maintenance' in the Kabo-Bon 『Dongyi Soose Bowon』. And it was supposed to be many changes of contents on 'the Discourse on Nature and Order', 'the Discourse on the Four Principles', 'the Discourse on the Establishment and Supplement' and 'the Discourse on Viscera and Bowels' in the Shinchook-Pan 『Dongyi Soose Bowon』 compared with those in the Kabo-Bon 『Dongyi Soose Bowon』.

Keywords : Lee Je-ma, 『Dongyi Soose Bowon』, bibliographical comparison, manuscripts,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 서론

東武 李濟馬는 조선시대 말기 동서양의 문화가 충돌하는 격동기에 태어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다. 그는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를 깊이 窮究

하다가 『格致藁』와 같은 철학서를 남겼고 "사람이란 무엇일까?"라는 문제를 깊이 사색하다가 독창적인 四象醫學의 산물인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였다.

『東醫壽世保元』은 저술시기 측면에서 크게 甲午年

(1894)의 '甲午本 東醫壽世保元'과 庚子年(1900)까지 改革하고 있었던 '庚子本', 東武 사후에 栗洞契의 門人들에 의해서 간행된 辛丑年(1901)의 '辛丑版 東醫壽世保元' 3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¹⁾. 이중에 필자는 갑오년에 저술되었던 『동의수세보원』의 체계를 검토해 봄으로써 함흥으로 귀향하여 改革하고 있었던 경자본과 현재 사상의학의 이론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는 신축판에 나타나는 체계의 차이점을 비교 고찰 하고자 한다.

사상의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동의수세보원』이 1894년 갑오년에 저술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갑오본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오히려 1901년 신축년에 울동계의 문인들에 의해서 간행된 신축판을 갑오본과 동일시하는 흐름도 있었다.

이에 필자는 그 동안 수집한 자료와 최근 발견된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에 들어있는 갑오본의 내용을 기본으로 갑오본의 체계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갑오본의 太陽人論이나 四象人辨證論의 일부 내용을 東武遺稿類와 상호비교해서 검토해 본 결과, 東武의 의학이 철학적 관점의 辛丑版 卷之一과 東醫寶鑑의 傷寒時氣表裏病論을 위주로 기록한 甲午本 病證論, 그리고 道教思想이 접목된 廣濟說의 3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甲午本의 내용이 동의보감의 傷寒時氣表裏病論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辛丑版 卷之一의 철학적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II. 본 론

1. 「東醫壽世保元」書名에 대한 고찰

가. 甲午本 서명에 대하여

『甲午本 東醫壽世保元』이라는 서명이 실제로 갑오년에 저술하였던 당시의 書名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辛丑版의 醫源論에 기록되어 있는 壽世保元²⁾이라는 서명과 四象人辨證論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甲午舊本³⁾

이라는 문장에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朝鮮名人傳』⁴⁾에서도 四象醫書를 저술하였다고 하였으나 서명은 따로 기술하지 않았다. 다만 咸泰鎬의 『濟命眞篇』에서만 戊戌年(1898) 冬季에 『壽世保元內經』⁵⁾을 東武에게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서명이 『壽世保元內經』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韓斗正이 1941년에 편집하여 발행한 七版本 東醫壽世保元⁶⁾ 목차에 보면 舊本, 新本, 印本을 각각 甲午本(1894년)과 庚子本(1900년) 辛丑本(1901년)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甲午本의 실제 서명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여기서 동무의 문인들로 구성된 栗洞契가 1901년 辛丑版이 간행되던 시기에 庚子本을 새롭다는 의미에서 新本으로 정하고, 이 책과 상대되는 의미로 이전에 저술되었던 甲午本을 舊本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 분류는 1941년 전후에 활동하던 保元契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新舊本을 나누고 있다. 또한 최근 東武의 집안에서 발견된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⁷⁾에서도 『東醫壽世保元甲午本』이라는 서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갑오년에 저술되었던 筆寫本의 서명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후의 서책들과 구별을 위해서 편의상 본 논문에서는 甲午本 東醫壽世保元(약칭하여 갑오본)이라고 정하였다.

나. 庚子本 書名에 대하여

『庚子本 東醫壽世保元』의 서명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1940년 韓敏甲이 필사한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이고, 그 다음해에 韓斗正의 七版 懸吐詳校 東醫壽世保元 목차에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新本을 庚子本으로 기록하고 있다. 辛丑版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의 庚子라는 단어는 서명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庚子年까지 甲午本을 改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 개초하고 있던 필사본을 경자본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 경자본은 辛丑版과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목차나 내용이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다. 사실 『咸山沙村 東醫壽

世保元 甲午舊本』에 기록되어 있는 病證論篇에서 庚子本을 지칭하는 新本은 경자본의 각 조문 위치와 辛丑版 조문들의 순서와 내용들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庚子本과 新本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지만, 본 논문에서는 논리전개에 따라 庚子本 東醫壽世保元(약칭하여 庚子本)이라는 서명으로 구별하였다.

다. 辛丑版 東醫壽世保元 書名에 대하여

辛丑版 東醫壽世保元은 일반적으로 『동의수세보원』으로 통용되고 있는 서명으로, 1940년대 韓敏甲과 韓斗正은 이를 인쇄하여 출판되었다는 뜻에서 印本으로, 신축년에 간행되었다고 하여 辛丑本이라 하였다. 또 洪은 初版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후 『四象醫學』⁹⁾에서도 역시 초판으로 기록하고 있다. 千¹⁰⁾은 그의 저서에서 本과 版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필자는 印本, 辛丑本, 初版, 初版本의 서명 중에서, 李¹¹⁾가 제기한 版本의 개념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고에서는 辛丑版 東醫壽世保元(약칭 辛丑版)이라 하였다.

2. 甲午本의 서지적 고찰

가. 甲午本의 裝幀

甲午本은 그 실물을 볼 수 없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추정해 볼 수 있다. 藏書閣에 보관되어 있는 辛丑版의 실물은 線裝本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갑오본은 영인된 신축판과 달리 필사본으로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최근 李聖洙翁의 증언에 의하면 이제마의 아들 龍海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던 갑오본이 卷軸裝으로 몇 개의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고, 東武의 직계 후손들이 이를 40여 년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이것으로 보아 갑오본은 권축장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甲午本의 종류

咸興 栗洞契에서 간행한 辛丑版은 닥나무 재질의 楮紙에 인쇄된 木活字本 4卷2冊으로 표지의 題簽에 각각

上, 下로 표시되어 있고, 版面은 10行22字로 되어 있다.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은 원본을 필사한 傳寫本으로 一冊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갑오본은 책의 형태가 아니라 몇 개의 卷軸裝으로 구성되어 있는 筆寫本 또는 草稿本으로 생각된다.

다. 甲午本의 집필장소와 저술시기

東武는 鎭海縣監에서 퇴임한 후 진주성내 杜門에서 己丑년(1889) 12월부터 庚寅년(1890) 11월까지 약 1년간 머무르면서 『格致藁』 儒略篇 후반부를 완성¹²⁾하고 다음해 漢城으로 올라온다. 이후 59세까지 서울에 머무르는데, 처음에는 貞武 金箕錫(1829~1891)의 집을 찾았으나¹³⁾ 이미 세상을 떠난¹⁴⁾ 상황이었고 『朝鮮名人傳』¹⁵⁾에는 갑오년 여름에 取堂 李源兢(1849~1935)의 집에 머무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이미 壬辰年(1892)에 지은 反誠箴을 改革(癸巳年 二月, 1893)하고 갑오본을 완성한 갑오년(1894) 4월 이후이기 때문에 이능화의 기록과는 어긋난다. 다만 侃亭 李能和(1869~1943)가 『조선명인전』을 집필한 1942년에는 당시 그가 이미 노쇠한 때라 시간상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891년 상경하여 이능화의 집에 바로 유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여기에 대한 자료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고, 이능화의 나이 20여 세인 고종 25년(1888)에 忠北 槐山에서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891년에 상경했다는 말에 어긋남이 없다. 최근 高原郡守를 역임했다는 高永喆¹⁶⁾과 당시 漢城에서 서로 교류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¹⁷⁾ 역시 이에 대한 신빙할 만한 자료는 입수하지 못하였다.

甲午本의 집필장소는 이원공의 자택이 분명하고, 그 위치는 1892년 작성한 古地圖『슈선전도』¹⁸⁾를 보면 南山의 아랫마을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남산골 나동, 쥬동, 필동” 등이 있는데 현재 서울시 중구 남산동이나 회현동, 필동에 해당한다.

갑오본의 저술시기는 신축판에 그 출처가¹⁹⁾ 나오기 때문에 癸巳年(1893) 7월 13일부터 시작하여 甲午年

(1894) 4월 13일이 확실하고, 전체 저술기간은 262일이 소요되었다.

라. 甲午本の 소개 파악

甲午本은 取堂 李源兢의 자택에서 집필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능화의 집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을 추적해 보았으나 李能和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임²⁰⁾과 그 집안²¹⁾에서는 아직까지 회신을 받은 바 없고, 補遺方이 수록되어 있는 七版 東醫壽世保元을 간행한 韓斗正의 집안도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1995년부터 국내의 古書目錄을 조사하고²²⁾ 최근에는 주로 國家電子圖書館²³⁾을 검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갑오본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다만 李聖洙翁의 대답에 의하면 東武 집안에서 보관되어온 갑오본 원본은 아들 龍海(1859~1922)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²⁴⁾

3. 甲午本の 목차

甲午本의 목차에 대한 필자의 관심은 金²⁵⁾의 강의에서 갑오본과 신축판을 비교한 내용을 접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七版 東醫壽世保元의 목차에 기록되어 있는 補遺方²⁶⁾의 위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 보유방은 막연하게 생각되던 갑오본의 체계를 어떤 자료보다 확실하게 윤곽을 잡을 수 있게 해주었다. 또 이 자료를 기본으로 갑오본의 체계를 구성²⁷⁾해 보기도 하였다. 최근 알려진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은 갑오본의 내용이 들어있는 자료로 수년 간 필자가 추정해온 갑오본의 체계를 대조하여 점검할 수 있었다. 이제 갑오본과 신축판을 비롯하여 이제마의 저서로 생각되는 東武遺稿類의 자료를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을 중심으로 상호 비교하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만 甲午本의 원본이 卷之一에서 卷之四까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는 확인할 길 없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의 체계에 따라서 나누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가. 甲午本 卷之一

신축판에는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이 해당

하는 부분으로, 갑오본에서는 이 부분이 신축판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辛丑版 卷之一에 해당하는 부분을 東武遺稿類에서 찾아보면 장서각 소장 『東武遺稿』 第二篇과 第三篇의 性命論과 四端論, 保健省 『東武遺稿』의 四象要目 註解와 總論 部分, 『四象醫學草本卷』의 卷之一과 卷之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중 장서각 『동무유고』와 보건성 『동무유고』의 四象要目 註解는 거의 동일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東武의 의학자료를 크게 3大別하면 철학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여 접목된 辛丑版 卷之一 구성 부분과, 『동의보감』의 傷寒時氣表裏病論을 위주로 접목된 갑오본 病證論 부분, 그리고 道敎의 養生理論이 접목되어 있는 신축판의 廣濟說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축년에 율동계의 문인들이 동무 사후에 추모 의미에서 모든 자료를 신축판에 넣어 간행했지만, 갑오년에 동무 자신이 집필할 당시에는 위의 세 가지 분류를 모두 담기 보다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주로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경자년에 가까워질수록 朱震亨의 呼吸出納 이론에서 출발한 四象人의 체계적인 분류와 『中庸』의 未發과 中節에 기저를 둔 哀怒喜樂과 性情을 통해서 훨씬 정형화된 이론을 보여주고 있지만(辛丑版), 갑오본이 주로 『동의보감』 상한문의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면, 철학적인 사고가 깊숙하게 배어있는 辛丑版 卷之一의 내용을 나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의 목차에서 廣濟說이 기록되어 있으나 본문 중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卷之一의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도 들 어가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본문 중에 性命論卷之一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최소한 신축판 性命論보다는 갑오년에 먼저 저술되었을 四象人辨證論 정도의 보건성 『동무유고』 총론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나. 甲午本 卷之二

辛丑版 卷之二에 독립되어 기재되어 있는 醫源論은 갑오본에서는 少陰人論內의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인용한 『상한론』 원문은 『동의보감』에서 끝

어 쓴 것이며 甲午本 病證論은 表裡病論과 腹背表裡를 중심²⁸⁾으로 분류한 것을 알 수 있다. 甲午本 少陰人外感病論과 辛丑版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의 인용문들은 대부분 동일한 조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인용문을 해석하는 방법은 外感表證에서 腎受熱表熱²⁹⁾으로 腎間陽氣와 胸間胃氣가 腎陽과 大腸³⁰⁾으로 각각 변화되고 있고, 透表에서 直升連接³¹⁾의 생리개념으로 변화된 것을 살펴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 같다. 甲午本 少陰人內觸胃病論과 辛丑版 少陰人胃受寒裡寒病論의 인용문들도 대부분 동일하지만, 그 인용문을 해석하는 방법은 外感病論과 腎受熱表熱病論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甲午本 少陰人腎胃病篇尾泛論에서는 세 조문이 辛丑版 少陰人胃受寒裡寒病論으로 이동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甲午本 張仲景傷寒論中少陰人病經驗設方藥二十三方과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少陰人病經驗行用要藥十三方巴豆藥六方은 신축판에서도 동일하지만 巴豆藥六方의 순서만 차이가 있다. 甲午本 新定少陰人病應用要藥二十四方과 辛丑版 新定少陰人病應用要藥二十四方은 7개 처방에 있어서 方名이 동일하지만 내용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이것은 곧 갑오본에서 신축판이 나오는 사이의 시각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少陰人論이 약간 增刪되었다고 하지만 단순히 인용 조문의 증감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관점에 커다란 변화

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표1에는 少陰人論에 기록된 갑오본과 신축판의 조문수를 비교한 것이다.

다. 甲午本 卷之三

갑오본의 저술시기와 가장 근접한 자료로 추정되는 『四象醫學草本卷』에 대해 李³²⁾는 少陽人을 먼저 연구했다고 하였고, 갑오본 집필 당시 病證論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인 부분이 少陽人論³³⁾으로 여겨진다. 甲午本 少陽人外感膀胱病論과 辛丑版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에서 外感表證이 脾受寒表寒病으로 변화³⁴⁾하였고 膀胱陰氣를 腎局陰氣와 脾局陰氣로 裡熱은 外寒包裡熱로 각각 관점이 변화³⁵⁾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신축판에는 갑오본에서 보이지 않는 亡陽과 亡陰에 대한 새로운 언급이 많이 나타나 점차 체계가 정립되어 나간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甲午本 少陽人外感膀胱病論의 두 조문은 辛丑版 少陽人胃受熱裡熱病論으로 이동하였다.

甲午本 少陽人內觸大腸病論과 辛丑版 少陽人胃受熱裡熱病論을 비교해 보면 少陰人의 胃病臍腹冷證이 裏寒病臍腹冷證으로 少陽人의 大腸病胸膈熱證이 裏熱病胸膈熱證으로 변화³⁶⁾되는 것을 볼 수 있고, 甲午本 少陽人內觸大腸病論의 두 조문은 辛丑版 少陽人脾受寒表寒病으로 이동하였고, 특히 세 조문이 辛丑版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으로 이동하였는데 이 부분은 葛根과 升

표 1. 少陰人論의 조문 수 비교

판본 \ 구분	醫源論	外感-表熱	內觸-裡寒	尾泛論-泛論	經驗方	新定方
갑오본에만		15	13			22
신축본에만	3	7	15			24
갑신일부만	(1)	7-7	5-3			2
갑오신축본	(5)	38-38	46-49	27-24	43-43	
갑오신축만						1
갑오본 전체	(6)	60	64	27	43	25
신축판 전체	9	52	67	24	43	27

*신본(경자본)의 조문은 신축판을 참고하였다.
 갑오본에만 : 신축판에는 보이지 않고 갑오본에만 나오는 조문
 신축본에만 : 갑오본에는 보이지 않고 신축판에만 나오는 조문

갑신일부만 : 갑오본과 신축판에 문장의 일부가 나오는 조문
 갑오신축본 : 갑오본과 신축판에 문장의 전부가 나오는 조문
 갑오신축만 : 경자본에는 보이지 않고 갑오본과 신축판에 나오는 조문

麻가 보건성 『東武遺稿』³⁷⁾에서 少陽人의 發表藥³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갑오년 전후에 少陽人의 일정 부분을 太陰人論으로 이동시키지 않았나 추정된다.

辛丑版 泛論이 치료경험을 기록한 네 조문을 포함하여 여섯 조문만이 새로 등장한 것과는 달리 갑오본은 41조문 중에서 24조문이 신축판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갑오본의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에서 신축판 泛論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갑오본 泛論의 중요한 내용은 四象人을 表裡病으로 분류하고 表病과 裡病 각각을 다시 表裡病을 세분하여 접근한 것과, 少陰人과 少陽人을 질병과 처방의 상대로 분류하면서 또 稟性を 軟弱과 強弱으로 분류하는데, 무엇보다 여기에서 保命之主의 조문을 발견한 것은 중요한 의미³⁹⁾가 있다.

甲午本 張仲景傷寒論中少陽人病經驗設方藥十方과 元明二代醫家著述中少陽人病行用要藥九方은 신축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水銀熏鼻方 아래의 조문들은 갑오본에서는 8조문이지만 신축판에서는 4조문으로 1조만 동일하고 대부분 水銀⁴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甲午本 新定少陽人病應用要約十九方과 辛丑版 新定少陽人病應用要藥十七方은 少陰人과 같이 5방이 처방명은 동일하지만 그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특히 갑오본의 錦上添花白虎湯이나 八味猪苓湯은 『四象醫學草本卷』에서 가미한 것으로 처방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서 처방명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술 시간의 순서를 살펴보면 참고할 가치가 있다. 표2는 갑오본과 신축판의 少陽人論 조문수를 비교한 것이다.

라. 甲午本 卷之四 太陰人論

갑오본의 太陰人外感腦顛病論과 신축판의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에서 갑오본의 인용문들이 13조문이고 신축판의 인용문이 2조문에 불과한데, 갑오본의 23조문 중에서 신축판의 肝受熱裏熱病論과 관련된 조문이 14조문에 달한 것을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인용문의 관점도 外感表病輕證에서 傷寒背頰表病輕證으로 다시 胃脘受寒表寒病으로⁴¹⁾ 正被邪圍에서 勞心焦思와 胃脘衰弱而表局虛薄으로⁴²⁾ 변화하는데 이것은 갑오본의 表裡病論의 관점에서 辛丑版의 四焦論의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갑오본의 太陰人內觸胃脘病論은 신축판의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을 비교하여 보면 매우 특이한 점을 볼 수 있는데, 다른 病證論이나 갑오본의 外感腦顛病論과는 달리 內觸胃脘病論은 그 조문의 개성이 약하고 신축판에서 비교할 수 있는 肝受熱裏熱病論의 조문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갑오본의 內觸胃脘病論의 관점을 버리고 泛論 부분을 포함한 辛丑版의 肝受熱裏熱病論 이론을 전면적으로 새로 정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갑오본 張仲景傷寒論中太陰人病經驗設方藥四方과 唐宋明三大醫家著述中太陰人病經驗行用要藥九方은 경자본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⁴³⁾ 여겨지고, 갑오본 新定太陰人病應用要藥十七方과 新定太陰人病應用要藥二十四方에서는 7방이 처방명이 동일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갑오본의 처방들은 역시 『사상의학초본권』과 가장 근사하다⁴⁴⁾. 표3은 卷之四에 나오는 太陰人論의 조문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 2. 少陽人論 조문 수 비교

판본 \ 구분	外感-表寒	內觸-裡熱	尾泛論-泛論	經驗方	新定方
갑오본에만	10	9	24	5	18
신축본에만	22	8	6	1	16
갑신일부만	6-6	7(8)-4	7-7	2-2	1-1
갑오신축본	15-16	17-17	10-10	20-20	
갑오본 전체	31	33	41	27	19
신축판 전체	44	29	23	23	17

표 3. 太陰人論 조문 수 비교

판본 \ 구분	外感-表寒	內傷-裡熱	經驗方	新定方
갑오본에만	2	8		17
신축본에만	3	18		24
갑신일부만	7-5	2-4		
갑오신축본	14-3	0-14		1-1
갑오신축만			13	
갑오본 전체	23	10	13	18
신축판 전체	11	36	13	25

다. 甲午本 卷之四 太陽人論 이하

太陽人論 이하의 갑오본과 신축판 목차는 대부분 일치한다. 이는 신축판 四象人辨證論 말미에 栗洞契의 문인들이 기록하고 있는 太陽人論 이하의 3론⁴⁵⁾은 增刪하지 않았다는 문장에서 확인된다. 다만 廣濟說은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의 전체목차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내용 중에는 들어있지 않고 洪⁴⁶⁾의 자료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봐서 갑오본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제설에 대해서, 李⁴⁷⁾는 장서각 『동무유고』의 勸壽論이 광제설 내용 중 壽에 대한 일부분으로 편집되어 갑오본에 광제설이 들어있었다는 견해가 있으나 필자는 이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광제설과 유사한 문장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갑오본이 아니라 『사상의학초본권』⁴⁸⁾이고 그 이후 신축판에 등장하는 광제설이나 勸壽論⁴⁹⁾이 기록된 것으로 생각한다. 광제설에 등장하는 양생론적인 관점⁵⁰⁾은 道教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東武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양생에 대한 기본지식을 四象人 분류와는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무의 지식 중에서 의학부분에 접목시킨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四象人辨證論은 갑오본과 신축판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동일⁵¹⁾ 하지만 四象人數의 비율을 기록한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무가 갑오년에 사상의서를 저술할 때는 少陽人에 대한 비율을 높이 보고

있는데, 이는 갑오본의 내용 중에서 少陰人이나 太陰人, 太陽人에 비해서 신축판과는 달리 조문이 많은 점과 갑오년 전후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四象醫學草本卷』의 卷之三 藥方에서도 少陽人藥方을 처음에 기록하고 또한 少陰人, 太陰人들과는 달리 一統을 더 기록한 것은 소양인에게 그만큼 무게를 두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사상인 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한 자료도⁵²⁾ 있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부분으로 갑오본 四象人辨證論⁵³⁾, 四象醫學草本卷 第二卷⁵⁴⁾ 그리고 신축판 四象人辨證論⁵⁵⁾ 정도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갑오본의 비율은 鎭海縣監과 晉州에서 경험한 四象醫學 지식을 기반으로 漢城府에서 저술한 것이고 『사상의학초본권』과 신축판의 비율은 함흥으로 귀향해서 保元局과 高原郡守를 거치면서 축적된 의학지식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 갑오본 四象人辨證論이 소양인 수를 비교적 높게 보는 시점에서 기록한 조문들이라면, 그 이후에 太陰人數를 높게 보았을 때 나타나는 四象人의 辨證 변화 문제를 고려할 때,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지는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될 것 같다.

四象人辨證論과 太陽人論의 내용은 신축판의 卷之一에 해당하는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이 갑오본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의 표5와 표6에서 갑오본 病證論은 肺脾肝腎을 臟腑用語의 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四象人辨證論⁵⁶⁾이나 太陽人論⁵⁷⁾에서도 肺脾肝腎의 용어와는 다른 관점이 있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完實無病⁵⁸⁾이나 內觸小腸病論保命之主⁵⁹⁾에서 보여주는 呼吸氣液과 出納水穀으로 사상인을 분류하는 자료들은 갑오본을 이해하는데는 훨씬 더 용이한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呼吸出納을 위주로 사상인을 분류하는 것은 신축판의 四端論과 臟腑論에서 肺脾肝腎과 性情⁶⁰⁾을 이용하여 분류하는 방법과는 너무나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신축판 卷之一 정도의 조문이 갑오본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었고, 혹 있었다면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장서각 『동무유고』나 보건성 『동무유고』에서 나오는 性命論보다는 그 이전의 자료로 생각되는 보건성 『동무유고』의 총론 정도가 갑오본의 서두를 짧게 장식하지 않았나 추정해 본다. 표4는 太陽人論 이하의 조문 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 4. 太陽人論 이하 조문 수 비교

판본 \ 구분	外感-外感	內觸-內觸	經驗方	新定方	(廣濟說)	辨證論
갑오본에만						2
신축본에만					(25)	2
갑신일부만						
갑오신축본						24
갑오신축만	4	11	12	4		
갑오본 전체	4	11	12	4		26
신축판 전체	4	11	12	4	(25)	26

4. 甲午本과 辛丑版의 내용 비교

가. 辛丑版 臟腑論의 身體部位 용어의 변화

갑오본과 신축판의 病證論 조문 중에서 동무의 시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論曰'이나 '今考更定 嘗治'로 시작하는 문장이다. 이런 조문 중에서 身體部位를 지칭하고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표에서 보듯이 갑오본 病證論에 膂 膂 膂 胸膈, 膀胱, 大腸, 胃氣, 腦

頤, 胃脘, 腰脊, 小腸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신축판 病證論에서는 脾局, 腎局, 大腸局과 같이 局이라는 접미사를 추가한 것과 背膂, 背頤, 膀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신축판 臟腑論에서는 肺脾肝腎之黨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갑오본을 저술할 당시에는 肺脾肝腎보다 胃脘, 胃, 小腸, 大腸이 중심 용어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갑오본을 저술하기 불과 5개월 전으로 1893년 癸巳년에 사용된 용어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바로 格致藁 反誠箴 離箴下截이다. 여기서도 신축판과 유사한 耳目鼻口, 肺脾肝腎, 腸胃胞子, 四肢百骸⁶¹⁾와 頤臆膂腹⁶²⁾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들이 太陽人篇이나 四象人辨證論에 등장하지 않은 것을 보면, 갑오본 저술 당시에는 傷寒 表裏病證 위주로 접근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離箴下截의 철학적인 용어들은 나중에 東武遺稿類와 신축판 卷之一의 性命論, 四端論, 擴充

論, 臟腑論과 廣濟說에 나타나며, 이런 이유 때문에 신축판의 卷之一의 시각과 病證論의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만 한다. 표5와 표6은 신축판 臟腑論의 용어와 갑오본과 신축판 病證論의 용어를 四焦論의 관점에서 비교해 본 것이다.

나. 目次에 대한 고찰

東武 생전이나 사망 직후에 활동했던 栗洞契나 1940년대의 保元契 문인들은 갑오본에서 나타나는

표 5. 辛丑版 臟腑論과 甲午本 臟腑의 용어 비교

目次 四焦	辛丑版 臟腑論	甲午本 少陰人篇	甲午本 少陽人篇	甲午本 太陰人篇	甲午本 太陽人篇
上焦	肺黨：津海, 神, 脈海 胃脘, 舌, 耳, 頭腦, 皮毛			腦額頁 胃脘	胃脘
中上焦	脾黨：膏海, 氣, 膜海 胃, 兩乳, 目, 背筋, 筋	膈氣(膈間, 膈膜) 胃氣, 脾氣, 胸膈	膈氣(膈膜, 膈間), 胸膈 胃氣(胃熱, 胃陽, 胃火)		胃口
中下焦	肝黨：油海, 血, 血海 小腸, 臍, 鼻, 腰脊, 肉	臍腹		腰脊 小腸	腰脊 小腸
下焦	腎黨：液海, 精, 精海 大腸, 前陰, 口, 膀胱, 骨	膀胱 大腸	膀胱氣, 骨蒸 大腸氣(大腸熱, 大腸火)		

표 6. 辛丑版 臟腑論과 病證論의 용어 비교

目次 四焦	臟腑論	少陰人篇	少陽人篇	太陰人篇
上焦	肺黨：津海, 神, 脈海 胃脘, 舌, 耳, 頭腦, 皮毛			背額頁, 胃脘(胃脘寒) 肺(肺燥), 頷
中上焦	脾黨：膏海, 氣, 膜海 胃, 兩乳, 目, 背筋, 筋	脾局(脾) 胃(胃溫氣)	脾局(脾局陰氣, 脾受寒, 脾), 背筋(膈間, 背) 胸膈(膈, 胸膈熱)	胸
中下焦	肝黨：油海, 血, 血海 小腸, 臍, 鼻, 腰脊, 肉		臍腹	肝(肝熱)
下焦	腎黨：液海, 精, 精海 大腸, 前陰, 口, 膀胱, 骨	腎局(腎, 腎陽) 大腸(大腸寒氣) 膀胱	腎局(腎局陰氣) 膀胱(膀胱眞陰) 大腸局(大腸)	

表裏病證을 위주로 四象醫學 病證論을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널리 알려진 肺脾肝腎을 통한 사상인의 일방적인 분류방식에 대해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少陰人論을 예로 표7을 작성하였다.

다. 喜怒哀樂과 哀怒喜樂에 대한 고찰

喜怒哀樂은 壬午年(1882)에 저술한 『格致藁』 獨行篇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래 東武의 여러 저작에 대략 80여 조의 문장에서 나타나는데, 己丑年(1889)의 格致藁 儒略篇 志貌에서 자신에게 나타나는 喜怒哀樂을 설명하다가, 癸巳年(1893)의 格致藁 反誠箴 乾

箴下截에서 『中庸』의 未發과 中節, 未發과 已發을 이용하여 많은 조문을 남겼다. 또 『四象醫學草本卷』 第一卷의 未發과 既發, 신축판 四端論의 未發과 已發에서도 같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사상의학초본권』 第一卷과 신축판 四端論 그리고 장서각 『東武遺稿』 教子平生箴에는 陽人과 陰人을 구별하여 哀怒喜樂 4개를 모두 이용하여 설명하고, 또한 보건성 『동무유고』 總論에서는 肺脾肝腎에 점목시켜 사상인을 설명하는데, 四象人辨證論에서는 陽人과 陰人에 대해 哀怒와 喜樂 각각 2개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사상의학초본권』 第一卷에서는 哀怒와 喜樂에 上升과 下降이라는 방향성이 추가되고 이것은 이후 신축판 四端論

표 7. 少陰人論 목차 비교

威山沙村 甲午舊本 목차	威山沙村 甲午舊本 본문	辛丑版 판심	辛丑版 본문	懸吐詳校 七版 목차
卷之二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論卷之二		東醫壽世保元卷之二	卷之二
醫源論	少陰人外感膈病論	醫源論	醫源論	醫源論
少陰表病論		少陰表病論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少陰人表熱病論
少陰裡病論	少陰人內觸胃病論	少陰裡病論	少陰人胃受寒裡寒病論	少陰人裏寒病論
泛論	少陰人膈胃病篇尾泛論	少陰泛論	泛論	泛論
經驗藥方	張仲景傷寒論中少陰人 病經驗設方藥二十三方	經驗藥方	張仲景傷寒論中少陰人 病經驗設方二十三方	經驗藥方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 少陰人病經驗行用要藥 十三方巴豆藥六方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 少陰人病經驗行用要藥 十三方巴豆藥六方	
新定藥方	新定少陰人病應用要藥 二十二方	新定藥方	新定少陰人病應用要藥 二十四方	新定藥方

에서 直升, 橫升, 放降, 陷降으로 더욱 세분화됨을 알 수 있다.

格致藁 反誠箴 乾箴下截에서는 성욕과 도덕을喜怒哀樂의 已發과 未發로 연결시켰고, 四象醫學草本卷 第一卷에서는 健剛柔順을 性理之四偏으로喜怒哀樂을 情慾之四偏으로 분류하면서 暴傷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후에 暴動浪動으로 변화되고 있고, 또한 갑오본 四象人辨證論에서 哀怒喜樂之心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四象醫學草本卷 第一卷에 출현하는 極이라는 용어가 나타난다. 이것은 나중에 보건성 동무유고 총론의 情을 거쳐 신축판 四端論에서 性情으로 분리되며, 사상인 각각을 性情으로 분류하는 체계가 제시된다. 한편 신축판 臟腑論에서는 哀怒喜樂之力으로 변화된다.

이렇게喜怒哀樂은 초기부터 신축판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1893년(癸巳) 이전에는 哀怒喜樂이 사용되지 않다가 四象醫學草本卷 第一卷을 비롯한 東武遺稿類와 갑오본 太陽人 內觸小腸病論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추상적인 中庸의 思想인喜怒哀樂과는 달리 보다 현실적이고 의화적인 관점이 필요한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哀怒喜樂은 1894년

(甲午) 이후부터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8은 사상인 중에서 太陽人을 예로 작성한 것이며, 性情이 사용된 조문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라. 呼吸出納에 대한 고찰

呼吸出納과 관련된 자료는 15개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갑오본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에는 胃脘, 胃, 小腸, 大腸이 呼吸出納과 연결되어 사상인을 설명하는데 사용⁶³⁾되었으나 후에는 肺, 脾, 肝, 腎으로 연결⁶⁴⁾되고 있고, 신축판 四端論에서 사상인을 설명할 때는 哀怒喜樂에 性情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不足하면 필히 盛⁶⁵⁾하거나 實⁶⁶⁾하다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것은 하나의 臟腑에서 두 개의 장부를 이용해서 사상인을 설명하는 중간단계가 아닌가 싶다. 신축판에 나오는 呼吸出納은 이전에 呼嚕張吸, 呼束緩吸, 呼吸唱和, 散充出納, 開閉出納, 開闔出納으로 사용된 것을 관찰할 수 있고, 갑오본의 保命之主는 肝肺의 呼吸之氣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太陽人篇에서 보이는 脾腎의 出納概念이 보이지 않고 陽暖과 陰清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이것은 기존의 관점에 溫熱涼

표 8. 太陽人 二臟局의 형성 변화 예

出處	太陽人	哀怒之氣
四象醫學草本卷 第一卷 一統		太陽人 哀局大而怒器直 哀大者仁也 怒氣直者義也 是局者 哀他衆人之有成也 是器者 怒夫別人之欺己也
四象醫學草本卷 第一卷 一統		太陽人 哀性闊散而怒情促急 哀性闊散則 氣注肺而肺益壯 怒情促急則 氣激肝而肝益削 太陽人肺實肝虛者此之故也
辛丑版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太陽人 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則 氣注肺而肺益盛 怒情促急則 氣激肝而肝益削 太陽之臟局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辛丑版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人 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而哀衆人之相欺也 哀性非他 聽也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而怒別人之侮己也 怒情非他 怒也

寒의 개념을 새롭게 추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다. 아래의 표9는 保命之主의 개념을 呼吸出納과 溫熱涼寒을 중심으로 보충한 것이다.

표 9. 保命之主

四象人	呼吸出納	溫熱涼寒
太陽人	吸聚之氣爲保命之主	陰涼之氣爲保命之主
太陰人	呼散之氣爲保命之主	陽溫之氣爲保命之主
少陽人	出放之氣爲保命之主	陰清(寒)之氣爲保命之主
少陰人	納積之氣爲保命之主	陽暖(熱)之氣爲保命之主

III. 결 론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甲午本 東醫壽世保元은 卷軸裝의 두루마리 형태를 가진 筆寫本으로 取堂 李源兢의 자택에서 저술되었으며, 그 원본 중의 하나는 川西面 雲洞里 享雨 (1929~)의 집에 보관되었다고 전한다.
2. 辛丑版 東醫壽世保元 卷之一인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은 甲午本에서 기록되지 않았거나, 기

록되어 있더라도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辛丑版 東醫壽世保元의 醫源論은 甲午本에서 少陰人論 안에 기록되어 있으며, 갑오본의 病證論은 太少陰陽四象人의 傷寒時氣表裡病論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4. 甲午本에도 少陰人, 少陽人論의 조문이 많으며, 甲午年 당시 東武는 少陽人의 수를 四象人 중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반면에 廣濟說은 갑오본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辛丑版 東醫壽世保元의 四端論과 擴充論에서 四象人의 분류를 肺脾肝腎에 哀怒喜樂의 性情을 이용해서 분류하였으나, 갑오본에서는 胃脘, 胃, 小腸, 大腸에 呼吸出納과 溫熱涼寒을 이용하여 분류하고 있다.

감사의 글

필자는 수년동안 甲午本 『東醫壽世保元』을 찾아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李聖洙翁을 통해 東武의 집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을 볼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밝힌다.

[색인이]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문헌비교, 초고본, 사상의학

참고문헌

1. 이하 甲午本, 庚子本, 辛丑版으로 약칭.
2. “余生於醫藥經驗五六千載後因前人之述偶得四象人臟腑性理著得一書名曰壽世保元”(辛丑版, 卷之二, 二板, 「醫源論」)
3. “嗚呼公甲午畢書後乙未下鄉至于庚子因本改革自性明論至太陰人諸論各有增刪而太陽人以下三論未有增刪故今以甲午舊本開刊”(辛丑版, 卷之四, 三十四板, 「四象人辨證論」)
4. 李能和. 『朝鮮名人傳』, pp.401~405, “...우리 先親과 友交를 爲陸히 하셨습니다. 그때 先生이 『四象醫書』를 著作하셨습니다.”
5. 『濟命眞篇』 咸泰鎬의 自序에 의하면 “고종35년 겨울에 이 제마선생을 만나보고 「壽世保元內經」1편을 전수받아 3년에 걸쳐 연구한 끝에 얻은 바 있어 이것을 기초로 三陰, 三陽, 六十四卦 變易法을 서술하고 鍼灸法과 諸方法을 합편하여 「濟命眞篇」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金信根 편, 『韓醫藥書攷』)
6. 韓斗正 編. 『縣吐詳校 東醫壽世保元』, 咸興, 昭和 16年(1941). 石版本 4卷 1册.
7. 이것의 원본은 川西面 龍海할아버지 집에 있었다고 하며, 庚辰年(1940)에 李鎭胤氏(李聖洙翁의 先親)가 咸興 沙村의 집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일간 걸쳐 등사하게 하였다고 한다. 原本은 몇 개의 두루마리 뭉치로 되어 있었으며, 두루마리 묶음을 보자기로 싸서 가져오는 것을 당시 李聖洙翁이 직접 보았다고 한다.
8. 洪淳用. 『綜說 東武 李濟馬傳 二』, 大韓漢醫學會報, 통권제 12호, 1964.7.1. p.17에서 동의수세보원이 출판된 순서에 따라 初版, 再版, 三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9.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四象醫學』, p.34에서는 初版, 再版 等の 순서로 기록하였다.
10.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주)민음사, pp108~522에서 책의 종류를 寫本, 刊印本, 木版本, 活字本, 石印本, 拓印本 등으로 분류하였다.
11. 李壽瓊.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의 病證論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1(2), p5.에서 筆寫本으로 출판되지 않는 서책은 ‘本’으로, 출판되어 인쇄된 서책은 ‘版’으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12. “四戒以上庚辰以後所著而已丑年更爲叩椎者也天勢以下自己丑十二月至庚寅十一月晉州城內杜門獨坐所著”(『格致叢』, 卷之一, 二十八板, 「大風箴」), 사상의학관련 자료들이 모두 이제마가 진해현감에서 퇴임한 직후 곧바로 상경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13. “丙戌年除授鎭海縣監每爲前武衛都統使金箕錫所知遇屢屢上達矣 庚寅年臣遞任上京則金箕錫已卒逗留都下五年而下情無由上達”(장서각 『東武遺稿』, 「鎭撫時上疏」)
14. <http://www.metro.seoul.kr/~seoul600/seoul-history/inmul/johoo/6/8.html>, 2000.11.12.
15. 李能和. 『朝鮮名人傳』, pp401~405, “...그 後 甲午年 여름에 벼슬을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오셨다. 先生은 筆者의 집에서 留宿하시며 우리 先親과 友交를 爲陸히 하셨습니다. 그때 先生이 『四象醫書』를 著作하셨습니다...”
16. <http://www.arthouse.pe.kr/고회동.htm>, 2000.11.12. 高永喆은 최초의 서양화가인 春谷 高熙東(1886~1965)의 아버지로 봉화군수와 1년간 함경도 고원군수를 역임하였다.
17. 2000년10월7일, 李聖洙翁과의 인터뷰. “6.25전쟁으로 釜山에 피난가서 있을 때 高熙東씨가 先親 李鎭胤씨를 찾아와 ‘여기가 사상의학을 창조한 유명한 이제마선생의 종손이 진료하는 곳이나, 나의 선친이 살아 있을 때 선생과 한양에서 서로 왕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18. 許英桓. 『定都600年 서울地圖』, 서울:汎友社, 1994. p.81.
19. “此書自癸巳七月十三日始作晝思夜度無頃刻休息至于翌年甲午四月十三日”(辛丑版, 『四象人辨證論』, 卷之四, 三十三板)
20. 서울 개봉중학교의 이하중 교감은 이능화의 후손으로 『無能居士李能和研究』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李能和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21. 全州李氏 宣城君派 집안.
22. 국립중앙도서관 古書目錄과 藏書閣, 奎章閣, 國會圖書館의 고서목록 및 각 大學의 고서목록, 그리고 文化財管理局의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日本所在韓國典籍目錄 등.
23. “<http://www.dlibrary.go.kr/>”
24. 손자 鎭顯(戊剗, 1891~)을 거쳐 증손 亨雨(1929~)의 雲洞里 자택.
25. 金亨泰의 「圖解東醫壽世保元과 東醫壽世保元」 주제발표.

경희대시내한방병원, 1994.11.16일.

26. 七版本의 補遺方은 桂附藿陳理中湯, 獨參官桂理中湯, 芎歸 蘇理中湯, 猪苓白虎湯, 葛根蘿菴子湯, 瀉心湯, 獨參湯 등이 있는데, 갑오본의 처방 위치를 二十七板, 三十六板, 三十六板, 五十八板, 七十八板, 二十六板, 二十八板으로 기록하였다.
27. 필자의 한의사협회통신망(AKOM) 공개자료 참조, 1996.4.17일, 1584쪽에서 갑오본이 四象人辨證論, 少陰人篇, 少陽人篇, 太陰人篇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28. “因許浚東醫寶鑑所載摘取張仲景傷寒論文及諸家所論抄集一通別附疑難以爲太少陰陽四象人傷寒時氣表裡病論而……其理在於腹背表裡”(『咸山沙村 甲午舊本』, 「少陰人論」)
29. “論曰張仲景所論太陽傷風病即少陰人外感表證也”(『咸山沙村 甲午舊本』, 「少陰人論」), “論曰張仲景所論太陽傷風發熱惡寒者即少陰人腎受熱表熱病也”(辛丑版,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卷之二, 四板)
30. “此證其人如狂者證間陽氣困熱也小腹硬滿者胸間胃氣怕寒也”(『咸山沙村 甲午舊本』, 「少陰人論」), “此證其人如狂者腎陽困熱也小腹硬滿者大腸怕寒也”(辛丑版,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卷之二, 五板)
31. “少陰人膈間陽氣未能透表而鬱蓄膀胱之證也”(『咸山沙村 甲午舊本』, 「少陰人論」), “少陰人脾局陽氣爲寒邪所掩抑而腎局陽氣爲邪所拒不能直升連接於脾局鬱縮膀胱之證也”(辛丑版,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卷之二 六板)
32. 李在媛.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李濟馬의 四象醫學觀에 관한 比較考察」, 사상학회지, 11(2), p93.
33. 甲午本 四象人辨證論에서 太陰人보다는 少陽人の 비율을 높여 보았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34. “今考更改發熱惡寒脈浮緊身痛不汗出而煩燥者即少陽人外感表脈也”(『咸山沙村 甲午舊本』, 「少陽人論」), “論曰發熱惡寒脈浮緊身痛不汗出而煩躁者即少陽人脾受寒表寒病也”(辛丑版,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卷之三, 一板)
35. “少陽人膀胱下降之陰氣爲熱邪所壅未達下降凝聚膈間膠固因滯之證也此證嘔者裡熱上逆也”(『咸山沙村 甲午舊本』, 「少陽人論」), “少陽人腎局陰氣爲熱邪所陷而脾局陰氣爲熱邪所壅不能下降連接於腎局而凝聚膈間膠固因滯之病也此證嘔者外寒包裡熱而挾疾上逆也”(辛丑版,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卷之三, 一板)
36. “少陰人胃病膈腹冷證受病之初已有腹鳴泄瀉之驗”(『咸山沙村 甲午舊本』, 「少陽人論」), “少陰人裏寒病膈腹冷證受病之初已有腹鳴泄瀉之機驗”(辛丑版,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卷之三, 十四板)
37. 『東武遺稿』는 간행되지 않은 원고본으로 앞으로 異本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우선 편역상 1966년 7월 북한 보건성 동의간부양성소에서 펴낸 자료는 ‘保健省 東武遺稿’로, 1994년 朴允熹가 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서 찾아낸 자료는 ‘藏書閣 東武遺稿’로 표현하였다.
38. 權健赫. 『국역 동의수세보원』(부록·동무유고), 서울, 도서출판 반룡, 1999, p.60.
39. 保命之主에 대한 기존의 이해는 臟理의 大小라는 개념에 머물러 있었지만 갑오본에서는 관점이 다소 다르다. 이 무렵 이제마는 呼散之氣, 納積之氣, 吸聚之氣, 出放之氣와 연관시켜 생각하였고 標本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大小 強弱 虛實보다는 表裡의 관점을 더욱 강하게 표출하고 있어, 차후 심도 깊은 論究가 필요한 부분이다.
40. 水銀에 대한 언급은 주로 輕粉과 같이 보이는데 『四象醫學草本卷』 第二卷, 六統에 살충약으로, 보건성 『동무유고』 少陽危症에 腫毒의 치료약으로, 갑오본에서는 抑陽降陰하는 보음약으로 되어 있다. 신축판에서는 중량을 줄여서 사용하였고 制陽回陰, 抑陽扶陰하는 약으로 기록하였다.
41. “今考更定……太陰人外感表病輕證也”(『咸山沙村 甲午舊本』, 「太陰太陽人論卷之四」), “論曰此即太陰人傷寒背頤表病輕證也”(辛丑版,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卷之四, 一板)
42. “此證形勢正邪相爭而正被邪圍譬如”(『咸山沙村 甲午舊本』, 「太陰太陽人論卷之四」), “此證原委勞心焦思之餘胃院衰弱而表局虛薄不勝寒而外被寒邪所圍正邪相爭之形勢客勝主弱譬如”(辛丑版,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卷之四, 二板)
43. “出印本無新本”(『咸山沙村 甲午舊本』, 「太陰太陽人論卷之四」)
44. 升麻開腦湯, 天門冬潤肺湯, 補肺生脉湯, 清心山藥湯, 黃栗五味子膏(『四象醫學草本卷』, 第三卷, 四統)
45. 三論을 신축판에서 보면, 論名이 붙은 것은 太陽人外感腰

- 脊病論, 太陽人內觸小腸病論, 四象人辨證論이고 그의 經驗要藥方, 應用設方, 廣濟說은 論字가 들어가지 않았다. 韓斗正의 七版本에서는 太陽人以下三論을 其餘諸論이라고 썼다.
46. “廣濟說은 東醫壽世保元을 編纂할때에 後編에 附錄으로 添附하였다”(洪淳用, 「東武의 生涯와 四象」, 東洋醫學, 9(3), 통권26호, 1983, p.8.
47. “동의수세보원이 甲午년에 완성되고, 그 뒤 庚子년까지 동의수세보원이 수정될 때도 太陽人論 이하 3론은 증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는 광제설은 갑오년 당시의 원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광제설과 권수론은 동일한 글이 아니다. 권수론은 광제설의 일부분일 뿐이다”(이창일, 『東武遺稿-東武 李濟馬가 남긴 글-』, 청계출판사, 1999, pp.24~25.)
48. 李壽瓊,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誌學的 研究」, 사상학회지, 11(1), p.67.에서 『四象醫學草本卷』 卷之一 五統, 卷之二 一統, 二統, 六統이 廣濟說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
49. 勸壽論은 1940년 韓斗正이 발행한 『格致藁』에 附錄으로 되어 있으나 藏書閣 소장의 1930년 京城府 姜齊模의 필사본 『東武格致藁』에는 濟衆新編이 들어있지 않았고 『四象醫學草本卷』과 藏書閣 『東武遺稿』에 그 조문들이 발견된다.
50. 金善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의 養生에 關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2(1), pp.101~109. 등 廣濟說 중심의 양생관련 자료.
51. “少陽人體形上盛下虛胸實足輕剽銳好勇而人數亦多四象人中最爲易辨”(辛丑版 「四象人辨證論」, 卷之四, 三十板)
52. “太陽人數從古稀少故古方書中……稀少也”(甲午本, 「新定太陽人病應用設方藥二方」), “太陽人體形元不難辨而人數稀罕故最爲難辨也”(甲午本, 「四象人辨證論」), “論曰少陰陽人中太陽人數元來稀少故”, 『四象醫學草本卷』, 「第三卷 五統 太陽人藥方」)
53. “北道山谷一縣萬人數大略論之則少陽人五千人也太陰人三千人也少陰人二千人也太陽人數絕少一縣中或三四人十餘人而已以南中原野一縣萬人數大略論之則少陽太陰人各四千人也太陰人二千人也太陽人數亦絕少一縣中或三四人十餘人而已”(『咸山沙村 甲午舊本』, 「四象人辨證論」)
54. “太少陰陽稟賦之人以今時一縣萬人數斟酌之則太陰人五千人也太陽人三千人也少陰人二千人也太陽人數不過四五人已”(『四象醫學草本卷』, 「第二卷 四統」)
55. “太少陰陽人以今時目見一縣萬人數大畧論之則太陰人五千人也太陽人三千人也少陰人二千人也太陽人數絕少一縣中或三四人十餘人而已”(辛丑版, 「四象人辨證論」, 卷之四, 二十九板)
56. 胃脘, 小腸, 胸膈, 臍下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辛丑版 臟腑論의 四焦보다는 三焦로 분류하고 있다. “太陽人噎膈則胃脘之上焦散豁如風太陰人痢病則小腸之中焦窒塞如霧少陽人大便不通則胸膈必如烈火少陰人泄瀉不止則臍下必如氷冷”(甲午本, 「四象人辨證論」)
57. 甲午本 太陽人論에서는 少陽人을 大腸과 胃로, 太陽人을 小腸과 胃脘이라는 용어로 접근하고 있다. “是故少陽人大出水穀陰寒之氣不足則胃中納水穀陽熱之氣必盛也太陽人小吸氣液陰涼之氣不足則胃脘呼氣液陽溫之氣必盛也”(甲午本, 「太陽人內觸小腸病論」)
58. 完實無病에서는 太陽人과 太陰人은 呼吸氣液으로, 少陽人과 少陰人은 出納水穀으로 분류하였다. “太陽人小便旺多則完實而無病太陰人汗液通暢則完實而無病少陽人大便善通則完實而無病少陰人飲食善化則完實而無病”(甲午本, 「四象人辨證論」)
59. “少陰人以陽煖之氣爲保命之主故胷胃爲本而膀胱大腸爲標也少陽人以陰清之氣爲保命之主故膀胱大腸爲本而胷胃爲標也”(『咸山沙村 甲午舊本』,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太陰人以呼散之氣爲保命之主故腦頤胃脘爲本而腰脊小腸爲標太陽人以吸聚之氣爲保命之主故腰脊小腸爲本而腦頤胃脘爲標”(『咸山沙村 甲午舊本』, 「太陰人內觸胃脘病論」)
60. 哀怒喜樂은 갑오본에서는 哀怒喜樂之心으로 분류하였고 太陽人論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외에는 辛丑版 四端論에서 性情을 이용해서 분류할 때까지 보이지 않는다.
61. “耳目鼻口行於天也四肢百骸行於人也肺脾肝腎行於性也腸胃胞子行於命也”(『東武格致藁』, 「反誠箴 噶箴下截」, 卷之二 四十六板)
62. “頤之眞合於達人之意則必得達人之知臆之氣合於大吏之慮則必得大吏之勇膂之血合於豪士之趣則必得豪士之清腹之腋合於酋長之志則必得酋長之優”(『格致藁』, 『反誠箴』, 箴下截

卷之二, 四十七板)

63. “太陽人意強而操弱意強則胃脘之氣上達而呼散者太過而越也操弱則小腸之氣中執而吸聚者不支而痿也……是故少陽人大腸出水穀陰寒之氣不足則胃中納水穀陽熱之氣必盛也太陽人小腸吸氣液陰涼之氣不足則胃脘呼氣液陽溫之氣必盛也”(甲午本, 「太陽人內觸小腸病論」)
64. “肺以呼肝以吸肝肺者呼吸氣液之門戶也脾以納腎以出腎脾者出納水穀之府庫也”(辛丑版, 「四端論」, 卷之一, 七板)

65. “少陽人大腸出水穀陰寒之氣不足則胃中納水穀陽熱之氣必盛也太陽人小腸吸氣液陰涼之氣不足則胃脘呼氣液陽溫之氣必盛也”(辛丑版, 「太陽人內觸小腸病論」, 卷之四, 二十二板)
66. “肺虛者肝必實肝實肺虛者名曰太陰之人肝虛者肺必實肺實肝虛者名曰太陽之人脾虛者腎必實腎實脾虛者名曰少陰之人腎虛者脾必實脾實腎虛者名曰少陽之人”(保健省『東武遺稿』, 「總論」, p.54.)